

다문화가정 해체 가속

광주·전남 이혼건수 5년새 2배 이상 급증
폭행피해 심터 찾는 이주여성도 크게 늘어

광주·전남지역 다문화가정이 1만 가구를 넘어선 등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결혼 이주여성의 이혼도 덩달아 늘고 있어 또 다른 사회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이혼 증가는 결혼중개 업체를 통한 상업적 결혼, 배우자에 대한 정보부족, 가부장적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전남 이주여성 이혼 '급증' =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지난 해 12월 기준 1만2037명(광주 4003명·전남 8034명)에 이르고 있다. 광주와 전남의 경우 2007년 이후 매년

10%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정도로 다문화가정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

이혼 건수도 2004년 이후 덩달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 광주와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건수는 각각 202건, 437건이었다. 2006년 85건, 202건과 비교해 볼 때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같은 해 광주지역 전체 이혼 건수(2857건)와 전남지역 이혼 건수(4183건)와 비교해볼 때 각각 7.80%와 11.6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남의 이주여성 이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적별로는 중국 출신

여성이 광주 108건(53.4%), 전남 204건(46.6%)으로, 전체 이혼 건수의 50% 안팎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 여성이 광주 50건(24.7%), 전남 122건(27.9%)으로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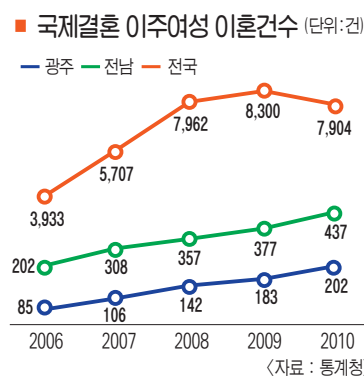
◇내국인 이혼율은 하향 추세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 증가현상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3933건이던 결혼 이주여성 이혼은 2010년 7904건으로 늘었다. 최근 4년 사이 배 이혼이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 여성 이혼율은 1000명당 65.7명에서 62.4명으로 줄었다.

실질적 결혼생활을 하지 않은 상태

에서 이혼한 경우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이혼이 빠져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 이혼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결혼 중개업체의 왜곡된 정보제공에 따른 배우자 간 불신과 경제적 거래에 따른 일부 국제결혼의 부작용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의사소통의 어려움, 생활양식의 차이, 체류자격의 둘러싼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폭행 피해 심터 찾는 사례 증가 = 이혼에 앞서 배우자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이주여성 심터를 찾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광주 이주여성 심터의 이주여성 및 동반 자녀 입소현황을 보면 2009년 58명, 2010년 78명, 2011년 99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여성이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21~30세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혼한 이주여성들은 이전 배우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열악하고, 이혼 과정에서 관계까지 단절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양육문제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족해체와 함께 미처 체류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혼 후 자녀를 출산한 이주여성의 경우 국적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삼중고'에 빠지면서 또 다른 사회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다문화가정의 이혼을 낮추기 위해서는 결혼 단계에서 혼인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불법적 국제결혼 중개행위에 대한 통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알림



세계 최초로 8000미터급 16좌를 안둔한 엄홍길대장과 함께 아름다운 우리 국립공원 산행을 떠나보세요. 전통의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와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엄홍길대장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립공원 16좌 원정대'에 등산애호가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행사는 한달에 한번, 넷째주 금요일(당일) 또는 목·금(무박 2일) 산행으로 진행됩니다. 16차례의 산행이 계획되어 있으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접수는 광주·전남북지역 밀레 매장(직영점·백화점·대리점)으로 하변되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산행출발은 신청매장(또는 지정장소)에 행사 당일 출발시간 30분전에 도착, 행사전용 '밀레버스'에 탑승하면됩니다. 참가자에게는 전원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문의:(주)밀레 본사 마케팅본부 02-3153-3143~4

회차	날짜	국립공원명	도착지	예상이동시간
1회	2012. 5. 25	계룡산	동학사입구 주차장	약 2시간 30분
2회	2012. 6. 21~22	주왕산	대전사입구	약 5시간 30분
3회	2012. 7. 27	번산	내변사주차장	약 1시간 40분
4회	2012. 8. 24~25	오대산	상원사주차장	약 6시간 30분
5회	2012. 9. 21	덕유산	삼공리 매표소	약 3시간
6회	2012. 10. 25~26	소백산	어의곡리	약 5시간 30분
7회	2012. 11. 23	내장산	내장사입구	약 1시간
8회	2012. 12. 20~21	경주남산	삼릉주차장	약 5시간
9회	2013. 1. 25	기아산	백운동주차장	약 3시간
10회	2013. 2. 21~22	월악산	동창교 입구	약 4시간 30분
11회	2013. 3. 22	속리산	화북분소	약 3시간 30분
12회	2013. 4. 25~26	치악산	구룡사주차장	약 5시간
13회	2013. 5. 23~24	북한산	북한산성입구	약 5시간
14회	2013. 6. 27~28	설악산	오색주차장	약 6시간 30분
15회	2013. 7. 26	지리산	중산리주차장	약 2시간 30분
16회	2013. 8. 29~30	한라산	정릉	약 1시간 30분

■ 주최: 밀레 MILLET, 광州日報 ■ 주관: Mtour



5·18민중항쟁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16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달아오르는 5·18 추모열기

오늘 금남로 32주년 전야제...내일 5·18묘지 기념식

'오월의 바람이 다시 세상을 깨워라'

5·18 민중항쟁 32주년을 맞아 17일 전야제가 열리는 등 광주 곳곳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시차돼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5·18 32주년 행사준비위원회(이하 행사위)는 17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5·18 32주년 전야제를 비롯해 각종 문화·예술, 공연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전 전야제는 80년 오월의 기억을 되짚어 보고 당시의 민주정신을 시민

에게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5·18과 관련된 문학작품과 예술작품, 영상, 사진을 보고 들으며 함께 할 수 있도록 꾸렸다.

전야제에 앞서 오월 아카이브전, 오월 예술가전 '나도 오월 피아니스트', 유네스코등재 기록물 등이 전시되고 오월 문화카페, 주먹밥 나누기 행사도 진행된다.

광주 남구 합창단 공연과 창작관소리 '김주열 열사'(김주열열사 기념사업회), 이야기하는 노래공연(일본노동자 합창단 '우타고에'), 게릴라극 악극서트 '나는 광주다' 등의 공연 단

장도 펼쳐진다.

오후 7시30분부터 9시까지 풍물굿, 전통문화연구회 '열수'의 북 공연, 윤진철 명창의 창작관소리 '오월광주'가 울려 퍼지고, 광주시는 인권도시 선언문을 발표한다.

전야제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30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 민중항쟁 영령들의 희생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추모제가 열린다.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는 '희망의 빛, 다시 피는 꽃'이라는 주제로 5·18 32주년 기념식이 개최된다.

기념식에는 3부 및 헌법기관 주요 인사, 유가족 및 오월단체 회원 등 2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사는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 김환식 국무총리가 낭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그리운 금강산'을 만든 최영섭씨가 최근 작곡한 '오월의 노래'가 첫 선을 보인다. '오월의 노래'는 국립5·18민주묘지 완공 당시 문병관 시인이 쓴 헌시를 노래로 만든 작품이다.

한편, 그동안 공식 식순에 앞서 불러졌던 '임을 위한 행진곡'은 기념식 마지막에 제창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호남예술제

전통의 종합예술대전·전국대회

2012. 4. 25(수)~5. 24(목)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남부대학교, 금호패밀리랜드 및 우치공원

신창기간
미술·작문 부문 2012. 5. 14(월)~5. 17(목)

주최: 광주일보사, 광주광역시
협찬: SAMSUNG, 삼성생명, K water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남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http://art.kjmedia.co.kr | 062.220.0541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